HOTEL · RESORT
Blue Stone LODGING LLC.
☎(858) 847-0572 | Marriott | CROWNE PLAZA

기독일보

시애틀, 귀국이사, 타주이사
현대통운
www.hyundaemoving.com
(무료전화) 1.866.545.2424

"예 할 때 예 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하라" (마5:37) WWW.CHDAILY.COM THURSDAY, May 27, 2010 Vol.246

"성공에 대한 양적 기준, 목회자에게 부담"

조너선 팔웰 목사 美 교계 현실 지적

큰 교회와 많은 성도 수, 그에 따르는 명성. 오늘날 자주 목회자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척도로 여겨지는 양적인 기준들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같은 부담이 때로는 목회를 중단시킬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미국의 한 목회자가 지적했다.

오늘날 미국 목회자 절반은 할 수만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사역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한다. 70%는 우울증과 싸우고 있으며, 90%는 사역의 도전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너선 팔웰(Falwell) 목사가 최근 버지니아 주 린치버그에서 열리고 있는 '리퓨얼 컨퍼런스(Refuel Conference)'에서 "미국 목회 현장에서 뭔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한 자료다. '리퓨얼 컨퍼런스'는 목회자들이 사역의 비전과 목표를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최근 바나그룹과 라이프웨이 리서치, 액츠29 등 미국의 교회 전문 설문조사 기관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달 1,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도덕적 문제, 신체적·정신적·영적인 소진(우울증과 무기력증 포함), 개인적 갈등을 이유로 사역을 중단하고 있으며, 신학대 졸업자 80% 이상이 목회를 시작한 최초 5년 안에 사역을 영영 포기해버리고 있다.


조너선 팔웰(Falwell) 목사. 기독교 우파 운동의 수장이었던 제리 팔웰 목사의 아들로 현재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TRBC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결과겠지만, 팔웰 목사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요인으로 오늘날 양적인 성과만을 가지고 목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교계 분위기를 지적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성도 수는 몇 명이나 되며, 해마다 발표되는 성장하는 교회 리스트와 영향력있는 목회자 리스트에 몇 순위로 오를 것인지, 얼마나 많은 트위터 팔로우어들이 따르는지 등의 기준들에 목회자들이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Top 100' 식의 리스트들이 나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러한 외적인 평가 기준들을 대하는 목회자들의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손현정 기자〉


KAPC 총대

"KAPC 총회, 2011년엔 뉴욕에서 만나요"

총회장에 문성록 목사 취임, 20일까지 회무처리

KAPC 제34회 총회가 막을 내렸다. 18일부터 21일까지 더인앳 포코노마노에서 '여호와를 위하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는 3일간의 회무를 끝내고 20일 오후 11시경 폐회예배를 드렸다.

총회는 18일 오후 7시 개회예배로 시작됐으며, 성찬식 후 오후 9시부터 회무처리가 이뤄졌다. 이자리에서 총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임원진을 발표했다. 제34회 총회장에는 문성록 목사가 취임했으며 부총회장에는 김남수 목사, 강기봉 목사가 후보로 나선 가운데 공천위원회에서 경선을 거쳐 강기봉 목사(뉴욕서노회)가 당선됐다. 19일에는 18일 임원교체에 이어 무난히 회의를 진행했고 선교의 밤 행사도 가졌다. 20일에는 신학교 발전위원회 존재의 적법성 논쟁과 국제개혁신학교 조사위원회 발표 등으로 시간을 연장해 당초 계획보다 1시간 반 여를 지체했다.

밤 11시경 모든 회의를 마친 총대들은 폐회예배를 드렸다. 문성록 목사가 설교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회의를 마친 총대들은 2011년에는 뉴욕에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윤주이 기자〉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후임으로 내정

만장일치로 내정됐으나, 김승욱 목사 기도 중

남가주사랑의교회 김승욱 목사가 한국 분당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목사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김 목사는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74년 가족과 함께 도미, 바사대학(Vassar College)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비블리컬신학교(Biblical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와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퀸즈장로교회 교육전도사를 거쳐 데이비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현재 한국 사랑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정현 목사가 개척한 남가주사랑의교회에는 지난 2004년 제2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현재까지 사역해오고 있다. 김상복 원로목사는 김 목사의 후임 내정 배경에 대해 "작년 초부터 담임목사 청빙위원회가 매주 한 번씩 기도회로 모였고 때로는 40일씩 금식기도하며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후보들 중 한 분에게로 성령님께서 모든 위원들의 마음을 만장일치로 만들어 주셨다"며 김 목사가 후임으로 내정된 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할렐루야교회의 후임 목회자 내정에도 불구하고 남가주사랑의교회측은 청빙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회측은 "할렐루야교회로 부터 청빙의뢰를 받은 후 공식적으로 청빙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할렐루야교회로 부터의 계속되는 청빙의뢰 때문에 김승욱 목사님은 기도중"이라고 전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김승욱목사

〈이태근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it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DAEWOO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27년간 고객만족도 1위! 초특급 제주신라호텔 단독계약!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일등회사 명품관광 아주관광!"
1등 여행사, 1등 서비스
최고급 호텔, 최고급 식사, 최고의 가이드
아주는 1년 내내 축제 아주의 모국관광은 매월 새로운 축제로 모십니다
3월 – 벚꽃축제
4월 – 함평나비대축제
5월 – 춘천마임축제
6월 – 무주반딧불축제
7월 – 보령머드축제
8월 – 강진청자문화제
9월 – 안동국제탈춤축제
10월 – 남강유등축제
"국빈사용 초특급 제주 신라호텔 2년 연속 단독 계약"
1) 세계리딩호텔연맹 멤버만이 제공가능한 세계 최정상 고품격 명품 서비스
2) 야외 스파 & 자쿠지, 핀란드 사우나, 수영장 및 실내 사우나 무료 제공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대한항공 공항 리무진 승차권 무료증정
6월12일~20일(일)
무주반딧불축제
The 14th Muju Firefly Festival
2010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
"반딧불 빛으로 하나되는 세상"
반딧불축제도 참가 하고 남아공월드컵 응원도 함께하세요~
6/17 아르헨티나 vs 대한민국
서해일주 + 무주반딧불축제 1 출발:6/15 4박5일 $1599 +Tax 부터
서해일주 + 제주 + 무주반딧불축제 2 출발:6/15 6박7일 $1949 +Tax 부터
모국완전일주 + 무주반딧불축제 3 출발:6/15 9박10일 $2299 +Tax 부터
모국전통 + 서울1박(민속투어) + 무주반딧불축제 4 출발:6/15 10박11일 $2419 +Tax 부터
성수기 항공 추가요금적용
"축" 미주 최초 LA아주관광 "백만불 대통령 상" 수상 백만불 관광진흥 장려탑
모국관광
모국 완전일주 9박10일 매일출발 $1699 부터 +Tax
인천, 전주, 남원, 목포, 보성, 광양, 진주, 거제, 창원, 김해, 제주2박, 부산, 경주,대구, 안동, 단양, 충주호, 설악산, 서울
제주 특선 3박4일 금,토,일 밤 $1149 부터 +Tax 경노우대
동해일주+제주 6박7일 금요일 밤 $1449 부터 +Tax
4박5일 $1349 부터 +Tax
동해일주+서울2박 8박9일 토요일 밤 $1649 부터 +Tax
서해/남해일주+제주 6박7일 화요일 밤 $1449 부터 +Tax
4박5일 $1349 부터 +Tax
신상품 제주일주 + 골프
여행전문가 박평식 교수의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칼럼
• 중앙방송 /AM 1230 여행이 좋다 (수: 3:00PM)
• 미주복음방송 / AM 1190(화요일:1:30PM)
• 라디오 서울 / AM1650 주말여행 이야기(금: 11:00AM)
• 미주기독교방송(수요일(3:00 PM)
• www.eajutor.com
아주관광 대표
SINCE 1984 – 관광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믿음직한 명품관광은 역시 아주관광 입니다!
대표전화 (213)388-4000
1-800-933-3011/ 서울 02-522-8686
www.usajutour.com
아주좋은 AJU Tours
CST # : 2052210-10
아주관광
27년 연속고객만족도 1위
♠아주항공부: (213) 387.9090 ♠동부(로렌하이츠, 리버사이드): (800) 956-3939 ♠토렌스(310) 217-0770 ♠샌디에고(800) 994- 1233 ♠북경: 8610-6439-2397 ♠3053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美 복음주의자들 "낙태 해결 위해 성(性) 먼저"

전미복음주의협(NAE), 근본적 접근 교회에 촉구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낙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성 인식과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함께 하고, 신학적으로 비교적 다루어지지 않았던 '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로 했다.

전미복음주의협의회(NAE)는 최근 낙태율 감소를 위한 협의회를 단체 내에 창설하고, 교회가 성에 관한 토론과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작년 낙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NAE는 이미 친생명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낙태 허용 법안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낙태는 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이고, 따라서 근본적인 낙태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NAE 대정부 담당 디렉터인 갤런 캐리 목사는 "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존중은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와 존중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따라서 성경에 기반한 바람직한 성 인식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보급하는 일에 활동을 집중할 전망이며, 먼저는 소속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성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도록 주력하고 있다. 복음주의 교인들 가운데서도, 특히나 젊은층 사이에서는 혼외 성관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복음주의 교인들 역시 낙태 시술의 소비자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캐리 목사는 "복음주의 커뮤니티 안에서도 많은 미혼 교인들이 성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만 교회가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NAE 소속 목회자 90%가 낙태에 반대하지만, 성 문제에 있어 교회가 적절하고 충분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한 목회자는 30% 미만이었다.

이에 협의회는 현재 40개 회원 교단들을 대상으로 '성의 신학'이라는 소책자를 교부하고, 이를 교회 안에서 성경적 성에 대한 설교나 대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총 24쪽의 이 책은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성이 존재하는 이유를 '결혼한 부부의 하나됨',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 '부부가 함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생명의 창조'의 4가지로 꼽았다. 책은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인 하나됨이라는 가장 친밀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있게 하셨다"고 밝히고, 따라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의 성적 결합은 생명의 창조에 관한 행위에 생명을 창조하려는 의도 없이 임하는 것이며, 이는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고 오늘날 낙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혼외 성관계의 위험을 성경적 기반에서 지적하고 있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성폭행 등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이나 산모나 태아의 건강상의 이유로 낙태가 필요로 되는 경우에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존재"로서 존엄성을 지니기에 태아의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현정 기자〉

KAPC총회 "국제개혁신학대 이상 없다"

총장 박헌성 목사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장 문성록 목사, 이하 KAPC) 신학대학교 조사 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국제개혁신학대학교 불법 박사 학위 논란에 대해 '이상 없다' 판정을 내렸다. 박헌성 총장은 "이 일이 문제가 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KAPC 산하 국제개혁신학대학교(총장 박헌성 목사)는 현재 ABHE 준회원이다. 주정부인가 박사학위를 수여해왔던 국제개혁신학대학교는 ABHE에 가입하면서 박사 과정을 중단해야 했다.

당시 이미 재학중이던 학생 9명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허락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졸업식에서 28명에게 목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다가 ABHE에 적발됐다.

ABHE 준회원임에도 불구하고 ABHE에서 허용하지 않은 목회학 박사 학위를 운영해왔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다. ABHE는 학위 수여자 28명에 대한 증거 제출 명령을 요구했고, 국제개혁신학교는 제출했다. ABHE는 서류를 검토하고 학교를 직접 방문,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ABHE의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불법 박사 학위 수여 혐의가 완전히 해소된 것인지에 대해 남가주 노회는 총회에 질의했다. KAPC는 신학교 조사위원회를 결성, 조사해 제34차 총회에서 발표했다.

신학교 조사위원회는 "신학교 조사위원회는 수습위원회가 아니다. 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조사만 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며 "박헌성 목사의 발언을 토대로,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낸다"고 밝혔다. 신학교 조사위원회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졸업식에서 국제개혁대학교가 28명에게 불법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는 혐의는, 불법 박사 학위를 수여하지 않았다고 ABHE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박헌성 총장의 발언을 조사위원이 들었다. ABHE가 이 학생들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알았고 허락했다는 박헌성 총장의 말을 조사위원들이 들었다.

또한 ABHE 결정이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박



국제개혁대 총장 박헌성 목사

헌성 총장을 통해 조사한 결과, ABHE가 모든 과정을 하자 없이 처리했으며 결과를 학교에 통보했다고 박 총장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신학교 조사위원회는 거듭 "조사위원회는 수습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자 답변을 듣고 보고할 수밖에 없다"며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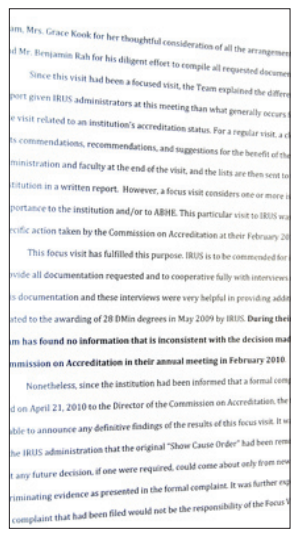
신학교 조사위원회 한 위원은 "임원으로서 오랫동안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일에 대해 들었고, 남가주 노회의 질문 의도를 들었고, 박헌성 목사를 통해 많은 질문을 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자리에서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라며 ▲박헌성 총장의 설명을 플로어에서 직접 듣는 방안 ▲위원장, 임시서기, 남가주노회 대표, 학교 대표 등으로 모임을 구성하고 그 모임에서 도출된 결과를 듣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후안에 대해 "그동안 학교와 남가주 노회 사이에 대화가 전무했다. 그래서 의문이 남아있는 것 같다. 대화와 질의 응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한 회원은 "조사위원들의 보고를 들었다. 보고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부터 가결하고 다른 의견을 논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문성록 목사는 "조사 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물은 후 동의와 재청을 받아 가부를 물은 후 조사 위원회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후 남가주 노회 회원의 발언을 청취했다. 남가주 노회 회원은 "조사 위원회가 성의껏 조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위원회의 결과가 사실이라면 기쁘다. 나도 국제개혁신학교 출신인데 혐의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 결과가 사실이길 바란다. 수고하셨다. 감사하다"고 밝히는 한편 "만일 결과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조사위원회가)책임을 지라"고 했다.

이에 조사위원회는 "주어진 시간에 조사만 했을 뿐 수습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ABHE가 '증거제출명령(Show Case Order)' 명령을 철회했음을 설명하는 문서. 국제개혁신학교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만해서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책임질 수 없음을 설명했다. 한 회원은 "총장님이 조사위원들에게 답변했으니 책임지라"고 발언했고 이에 박헌성 총장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장담했다.

박 총장은 "누구든 ABHE에 전화해서 이 일에 대해 문의해도 된다. 내가 총장으로 있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비약적인 설명일 수 있으나 제출된 서류와 발언이 나중에 모두 거짓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린 수습 위원회가 아닌 조사 위원회다. 다음 회기까지 조사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조사 위원회의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 점을 이해하시고, 총회 산하의 학교이니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고 당부했다.

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는 회의록에 채택됐고 이후 폐회예배가 시작됐다.

〈윤주이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학 광고국장 : 이인규
지 사 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김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www.rosehills.com

로즈힐 공원묘지

100여년 역사의 정성스런 관리서비스와 가깝고 편리한
로즈힐 공원묘지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세요!

프리웨이에서 가까와 편리한 로케이션

비교해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
월 $39부터!

▶LA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풍수지리적 관점의 최고 명당
▶세계 최대 규모 단일 공원묘지 ▶한인 장례매니저의 친절한 상담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tier #FD970

Morning Glory Lawn. $2,900 plus one time endowment fee. 10% down payment. Balance financed at 3.9% (this interest rate is good for 2nd Quarter, April through June 2010). Automatic bank payment required. 84 monthly payments

본사 (한국어 직통) 1-888-848-8707
Rose Hills Mortuary (#FD970) 3888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세리토스점 [한국어 문의] 1-877-767-8850
Rose Hills Arrangement Center (#FD1849) 11900 S. Street, #119 Cerritos, CA 90703

브레아점 [Brea] (562)809-7027
Rose Hills Brea (#FD2007) 835 S. Brea Blvd., Brea, Ca 92821

장의 & 장례보험 문의 (562)201-7097

“영적 위기에 처한 미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LA 교역자협의회, 박진구 목사 초청 기도 세미나 개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LA 교역자협의회(회장 표세흥 목사)의 300명 교역자 기도 동지회가 주최한 기도 세미나가 지난 23일 세계등대교회(이상남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사로는 미주평안교회 담임 송정명 목사와 전주 안디옥교회 담임 박진구 목사와 사모가 초청됐다.

송정명 목사는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미국과 LA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실 것”이라며 국가를 위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목사는 “1950년 6.25전쟁, 1980년대 KAL기 폭파사건,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 등 한국의 위기 사태와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과 성경공부 시간을 금지시킨 후 1973년에는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5천만 명 이상 죽임을 당하고, 동성애, 자살, 마약 등의 문제가 극도로 심각해져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LA를 방문한 전주 안디옥교회 담임 박진구 목사와 박사라 사모가 기도 세미나를 인도했다. 박 목사는 특히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이어 박사라 사모는 “감정, 생각, 분노를 통해 악령이 들어와 우리를 장악해 나간다”며 “크리스천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구 목사와 박사라 사모는 입을 열어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했으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이 빠져나가게 되고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큰 기쁨과 믿음으로 변화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박진구 목사는 1977년 서울 한신교회(고 이중표 목사)전도사로 섬겼으며 1981년 서울 민족교회를 개척한 후, 1985년 싱가폴 선교사로 파송됐다. 1986년에는 싱가폴 임마누엘 현지인교회(현 True Light Church)를 개척했으며, 싱가폴 아가페 마약갱생원 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1997년 바울선교회 미주개발원 원장으로, 2002년부터 풀러선교대학원 객원교수로, 2006년부터는 이동휘 목사를 이어 전주 안디옥교회 담임으로 목회하고 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한 박진구 목사는 교회가 6,000여명의 성도로 성장하는 경험을 했다. 또한 교회에 부임 할 당시 24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던 것에서 현재는 42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부흥했다.

〈지재일 기자〉

대흥장로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및 임직 예배 드려

대흥장로교회(담임 권영국 목사)의 창립 33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가 지난 23일 오후 3시 본당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권영국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남가주노회장 민종기 목사의 말씀, 안수기도, 권면 및 축사, 임직패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에서 새 일꾼이 부흥의 핵심 세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권위로 직분을 감당해야한다고 전했다.

민 목사는 “복음은 전하는 부흥의 핵심 세력이 되기 위해선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며 그 좋은 군사는 새 일꾼이 되어야한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선 기초를 잘 다져야 하는데 예수의 군대는 말씀을 통해 기초를 다진다. 기초 훈련을 통해 영적인 근육이 붙는 직분자들이 되길 바라고 좋은 군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듯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워 직분을 감당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권면의 말씀을 전한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엄영민 목사는 “임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임직자들은 열심히 그리고 겸손하고 조화롭게 일하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 또 최소한의 일이 아닌 최대한 일을 하는 일꾼이 되길 바라며 일할 때 행복하게 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 대흥장로교회 원로 이익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목회자들이 직분자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있다. ⓒ 이태근 기자

〈이태근 기자〉

엘림교회 창립감사 ‘한 생명 살리기 찬양콘서트’

노형건 전도사 초청, 잔잔한 감동 전해

엘림연합교회(담임 박상철 목사) 창립 6주년 감사 ‘한 생명 살리기 찬양콘서트’가 5월 23일 열렸다.

찬양콘서트는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로 알려진 노형건 전도사와 그의 아내 노성혜 사모가 나서 찬양과 간증을 진행했다.

콘서트에 참석한 성도들은 “노형건 전도사의 영감 있는 찬양과 진솔한 간증들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고 전했다.

엘림연합교회는 “이번 찬양 콘서트로 월드비전 사역에 동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 앞으로도 세계 선교 사역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엘림연합교회는 6월 2일~5일까지 안막 목사(서울동일교회) 초청 심령대부흥회를 개최한다.

교회 측은 “창립 6주년을 기점으로 그 동안의 사역방향을 재점검하고 라스베가스의 영적 부흥과 신앙회복을 위한 교회의 책임을 자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미 기자〉



노형건 단장



극동성가단 제13회 정기 연주회 성황

극동성가단은(단장 조원석, 지휘 조한우) 5월 23일 오후 7시 30분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제13회 정기연주회를 60여명의 단원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연주는 마약과 알콜 등 청소년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상담하는 ‘나눔선교회’를 돕고자 마련됐다. 3개의 무대로 구성되는 이번 공연에서 오케스트라 반주와 함께 최신 성가곡과 한국의 실력 있는 작곡가 박지훈, 이현철, 우효원 씨의 주옥같은 곡들이 연주되었다. 특별출연으로 강대승 선생의 지도하에 LA Young 두레패사물놀이의 흥겨운 연주와 14명으로 구성된 MIXTHUS 남성중창단이 ‘원해’, ‘날 사랑하심’ 등 수준 높은 남성 합창을 들려주었다. 극동성가단은 함께 찬양할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연습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9:30 / 문의: (818)406-2088 조한우 지휘자

〈지재일 기자〉



■ 빛과소금교회, 이정현 목사 강사로 춘계말씀집회 개최

이정현 목사,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자"

빛과소금교회(담임 이정현 목사)가 2010 춘계말씀집회를 21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개최했다.

집회 강사로는 교회 창립 후 최초로 담임 목사인 이정현 목사가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3백여 명의 교인들이 참여했다.

이날 이 목사는 사무엘상 17장 23절부터 51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힘과 믿음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신구약에서 인생 이야기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인 다윗이 승리한 영적 대결을 말하며 다윗 처럼 영적 대결에서 승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목사가 승리할 것을 주문한 것은 4가지다. 이 목사가 첫번째로 승리할 것을 주문한 것은 다윗이 악신과의 대결에서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찬양으로의 승리'다. 이 목사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성령이 떠났고 이로 인해 악신이 들어와 우울증, 발작 등의 증세를 보였다. 시간이 갈수록 증세는 심해졌고 그러한 때 성령충만한 사람인 다윗이 나타나 치료받게 됐다. 다윗은 악신과 영적대결을 벌여 승리했는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영감 있는 찬양 때문이었다"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을 지날 때 가장 앞에서 이끈 것은 유다 족속이었는데, 유다는 다른말로 찬양이라고 한다. 찬양하면 길이 열리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 그렇기에 찬양하며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자"고 전했다.

이 목사가 두번째와 세번째로 승리할 것을 주문 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거둔 '믿음의 승리'와 질투의 사울을 놓아줌으로 거둔 '삶에서의 승리'다. 이 목사는 "블레셋의 거인 전사 골리앗은 하루에 두 번 4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비방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움과 염려의 상징이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비방하는 골리앗의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눅 들게 만들었다. 두려움과 염려 만큼 더한 두려움은 없는데 그런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갔고 그를 향해 돌을 던져 쓰러뜨렸다. 골리앗이 쓰러진 것은 날아가는 돌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며 다윗은 하나님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 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말했다. 또 이 목사는 "다윗은 수년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일부러 놓아줬다. 다윗은 미움이라는 또 다른 대결에서 승리는데 이처럼 삶에서도 승리하자"고 말했다.


이정현 목사. ⓒ기독일보 DB

끝으로 이 목사는 '기도'로 승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목사는 "다윗은 자신의 참모와 같은 지혜의 사람 아히도벨과 아들인 압살롬이 모반해 왕위를 빼앗겼다. 그 이후 자신을 찾는 이들로 부터 피해다녔고 도망 다니다 다윗은 기도했다.

기도 후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좋지 못한 최후를 맞았다. 다윗은 위기의 때에 기도했다. 믿음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함으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 목사는 22일 오후 7시 30분 '믿음의 사람도 쫓길 수 있다', 23일 오전 8시와 11시'가장 강한 유혹 앞에서' 등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태근 기자〉

KAICAM USA, 제5회 목사안수식 개최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 미주 제5회 목사안수식

"이동진 목사 외 25명은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 미국서부지부에 속한 목사로 안수받았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 회장 이필재 목사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회장 이필재 목사 KAICAM, Korean Association of Independent Churches and Missions)미주 제5회 목사안수식이 애너하임 소재 LA 말씀의집에서 개최됐다.

이필재 목사는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이하 KAICAM)는 교단 배경없이 신학교를 졸업한 소명자들이 목사로 세워지고, 그들이 복음전파 사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연합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목회자의 신학과 목회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후원하는 연합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에이, 뉴욕, 캐나다 등에서 모인 25명 목사 안수자를 대표해 인사말을 전한 이동진 목사(크리스천 헤럴드 사장)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 연합회 임원, 가족,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하는 목회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KAICAM 서부지부 안수위원으로는 이필재 목사, 안문혁 목사(영평교회 원로), 남양무 목사(KAICAM 총무), 송용필 목사(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KAICAM 회원), 박희종 목사(KAICAM 감사) 등 총 15명의 안수위원과 김시철 목사(한국 나사렛 전 감독), 강일용 목사(하나로커뮤니티교회 담임) 등 3명의 특별 안수위원이 참여했다.

〈지재일 기자〉

서울아산병원, 미주동포 전용 건강검진 프로그램 런칭


서울아산병원 최재원 소장이 아주관광 박평식 대표에게 미주교민 전용 건강검진 프로그램 런칭 기념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재일 기자

아주관광(대표 박평식)과 협력으로 건강검진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이 그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미주동포 전용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 런칭했다.

이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일 윌셔프라자호텔에서 '미주동포 전용 건강검진 프로그램' 런칭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미주전용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아주관광 검진패키지 250명 분석해 전용 프로그램 개발

아주관광 건강검진패키지를 이용한 250명의 고객을 바탕으로 개발된 미주동포 전용 프로그램은 General 패키지, Tailered 패키지, Extended 암 패키지, Premium 패키지 등 총 네 가지이다.

△General 패키지는 전반적인 성인병 검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종합검진 비용이 부담되는 교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Tailered 패키지는 개인별 가족력, 병력, 성별, 연령, 생활습관 등에 따라 간호사와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설계 프로그램이다.

또한 △Extended 암 패키지는 주요 장기별 암 검진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며, △Premium패키지는 머리부터 내부 장기 전체를 포함한 정밀 토털 프로그램이다.

최재원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장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섬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동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려를 담은 교민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며 "한국 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 글로벌의료서비스산업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프로그램 개발 취지를 설명했다.

아주관광 박평식 대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미주 동포들의 한국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아산병원과의 파트너쉽 강화로 의료관광의 양적성장을 넘어 질적 향상을 이뤄내, 미주 동포들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히 이날 서울아산병원은 건강검진패키지를 통해 미주동포 전용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아주관광 측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상미 기자〉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지용덕목사) · 오렌지카운티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박용덕목사) · 남가주 한인목사회(회장:이정현목사) 공동주최

전 미주와 캐나다 한인교회는 가을철 한 주일을 "Blessing Day"로 정하고 집중전도합니다!

"네 전도의 손을 내밀라 회복시키리라" [마12:13]

선우권 목사 초청

Blessing Day Conference

태신자집중 관계전도 8주간 PROJECT

"그동안 행사로 끝나버렸던 총력전도주일을 개편해서 전교인이 태신자를 한, 두명만 선정하고 관계를 형성한 후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관리함으로 등록까지 시키는 실제로 열매가 맺혀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날짜: 2010년 6월 28일(월) 오후2시(등록)~30일(수) 저녁6시(종료)
장소: 미주 평안교회(담임:송정명 목사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 목회자 반과 성도반을 인도하실 주제별 분반 공부 강사


강사: 선우권 목사
전. LA충신교회 담임(10년간)-교회건축 / 분당 남서울 교회 개척- 건물분양
현. 한국 수지제자교회 담임- 건물 분양
블레싱데이 시스템 대표, 한영신학대학교 실천신학 교수
목사횃불회 강사, 성신클럽 부흥사연수원 강사


강사: 박영민 목사
서울 새광명교회(기감)
성도들의 전도메세지훈련, 태신자 관리법

※ 미주와 캐나다에 불어닥친 이 블레싱데이 운동으로 구체적인 전도열매를 통해 한인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 회비에는 식사와 교재책과 태신자 전도자료와 다른 세미나 자료가 포함됩니다 ◀

5월 31일까지 체크 도착	$140	① 3인 이상이면 개인당 10%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② 교회 전도팀은 목사님과 함께 오세요. ③ LA공항 픽업이 필요하신 분이나 호텔 예약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e-mail해 주세요. (LAX공항에 28일 오전 도착자에 한해서 LA교계 목사님들이 무료로 픽업. 호텔비는 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지불이며 예약필수) ④ 숙박 단체할인:1인당 Tax 포함된 $40
6월 25일까지 등록	$160	
6월 28일 당일 등록	$180	

⑤ 이번에 오신 목회자님에 한해서 한국의 각종 유명한 세미나 자료를 특별선물로 증정하고자 합니다.
목회에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최근 개편된 원어성경풀이주석, 성구사전과예화사전, 평생설교에 사용하는 주제별성구설교, 한국의 태신자 전도와 관리시스템의 모든자료 기타등등
⑥ 2009년까지 한국에서 열렸던 유명한 세미나 자료와 강의동영상들을 가져가겠습니다. 설교클리닉, G12, 성경66권 강좌, 4차원영성, 성경스케치통독프로그램, 십자가의길, 불신자정착세미나, 네러티브설교세미나, NCD건강한교회세우기 자료, 찰스 프렌시스 신유강의 등등.
용량이 많으므로 와서 보시고 필요한 자료만 복사해 가시기 바랍니다(저장용 하드웨어를 지참하신 분에 한해서 무료로 가능)

❖ 강 의: 월 오후2시 등록→교재배부→강의시작~오후10시, 화 오전10시~오후10시, 수 오전10시~오후6시 종료
공개강의: 저녁7:30부터는 전도팀들을 위한 공개 강의. 저녁회비는 무료
❖ 등 록: 자료 준비와 식사준비 관계로 미리 등록하시고 체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방 법: 1) http://cafe.daum.net/sujijeja.com에 들어가셔서 등록하셔도 되고
2) e-mail(sunwookwon@hanmail.net)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3) 전화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 문 의: 323-916-1988, 516-729-5535, 213-258-0833
❖ 체크 보내실곳(체크가 도착해야 등록이 완성됩니다):
Pay to: Kwon Sunwoo (6051 Hollywood Blvd #109 Hollywood Ca., 90028 U.S.A.)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한인목회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L.A 동양선교교회에서 블레싱데이 컨퍼런스를 갖게 된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태신자집중 전도세미나는 3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태신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전도를 통해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입증한 가장 뛰어난 전도 프로젝트입니다. 이 세미나를 미국에 맞게 8주차로 개편하여 작년에 은혜받은 블레싱데이 컨퍼런스를 갖게 된것이 감사하고요, 한인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미국지역에서 개최되는 태신자 전도세미나를 기쁜 마음으로 적극추천합니다. 목회자님들은 만사제쳐놓으시고 꼭 오셔서 참석해 보세요.
[前전 총무침례교회장경동 목사]


2010 미국 블레싱데이를 축하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28:19-20)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며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여야 교회로 들어오는 새신자들을 교회생활에 잘 적착시켜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을 만들어야합니다. 이 일에 전문성과 능률성이 입증된 선우권목사님이 초빙하시는 컨퍼런스가 남가주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리게 됨을 1300여 교회를 깨신하며 축하자로서 감사하며 한영하며 축복 합니다. 이 블레싱 데이 컨퍼런스는 이민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은 물론 교회지도자들에겐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이 세미나 참석으로 개 교회는 물론 남가주 전체 교회가 새 힘을 받게 될것입니다. 산학적으로 잘 준비된 이 곳의 교역자들이 교회실제목회론적으로 잘 정리된 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우고 원리를 활용하면 목회 능력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신 이민 목회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배움라 나눔의 기회에 다함께 참여하시기를 권유 드리고 추천 합니다.
[남가주교회 협의회 회장 지용덕 목사]

현재까지 지원해주신 공식 후원교회
남가주지역: 미주앙곡교회(지용덕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박용덕목사), 삼성장로교회(신원규목사), LA풍성한교회(박호우목사), 윌셔중앙교회(업규서목사), 미주광안교회(송정명목사), 충현선교교회(민중기목사), 미주성산교회(방동섭목사), 소금과빛교회(이정현목사), 미주새생명교회(성성용목사), 큰빛교회(조한영목사), 자유하는교회(최수일목사), 은혜침례교회(박찬권목사), 오작예수초대교회(강윤택목사), 좋은소식교회(이호우목사), 나성생수의강교회(강영호목사), Burbank한마음제자교회(곽부환목사), LA옥스포드장로교회(임의치목사), 샌디에고영락교회(강명락목사) 타주지역: 시애틀베니니교회(최창효목사), 아리조나동양선교교회(김용식목사), 토론토중앙장로교회(유승식목사), 뉴욕주신교회/개혁장로회신학교(김용의목사), 라스베가스스망교회(유용호목사), 북가주갈보리침례교회(정주환목사), MA퀸지영생장로교회(김무경목사), 독일프랑크푸르트한인장로교회(육호기목사), 샌디에고채일침례교회(조다윗목사), 북가주풍성한교회(김근제목사), 캐나다에이플리지한인교회(김학중목사), GA영광장로교회(박은생목사), 메릴랜드한우리교회(박우원목사), 뉴욕새생명교회(허윤준목사), 아틀란타한인침례교회(김성구목사)



센서스 요원이 가정으로 방문할 시, 반드시 공인된 센서스 배지와 가방을 확인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20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 축제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지난 23일 개최됐다. 남가주 지역 교회와 단체가 연합해 남가주에 거주하는 1,500여 명의 발달장애인과 봉사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가정의 장애자녀들에게 전달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은혜한인교회 송규식 목사는 "이번 20회 축제는 재정난으로 개최여부가 불투명했으나 한기홍 목사님이 이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행사장에는 50여개의 천막, 3대의 대형 놀이기구, 15개의 크고 작은 게임 부스, 무대공연, 바디 워십댄스팀, 찬양, 풍선 아트, 총 35개 교회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부스도 마련됐다. 송규식 목사는 "장애인들에게 최대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은혜한인교회 전체 부서의 협조를 얻었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결과 1,5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음에도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어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지재일 기자〉

미주성산교회 창립 19주년 '청년기 교회로'

19주년 맞아 임직식 거행...전교인 수양회도 계획

미주성산교회(담임 방동섭 목사)가 창립 19주년 맞이 감사예배를 드리고 그 기념으로 임직식을 거행했다.

지난 23일 본교회당에서 드려진 감사예배에서 방동섭 목사는 19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하고 청년기 교회로서의 성숙한 교회가 될 것을 기도했다.

'하나님의 은혜'(본문-고전 15:9~11)란 제목으로 설교한 방동섭 목사는 "19년 동안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요, 두 번째가 직분을 주신 은혜"라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주의 일 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했다. 방동섭 목사는 "이제 교회가 19살 청년의 나이가 됐다"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맡기셔도 안심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미주성산교회는 19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거행했다.

같은 날 미주성산교회는 안수집사 3명과 권사 2명의 임직식을 거행했다. 특별히 임직식에서는 표세흥 목사가 '함께 세우는 교회'(본문-엡2:19~2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한 미주성산교회는 19주년 기념 한마음 가족 수양회를 5월 30~31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교회측은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덧붙였다.

〈박상미 기자〉

인랜드교회, 대학/대학원생 장학생 모집

신청자격은 대학이나 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이 허가된 자로서 세례 받은 기독교인 풀타임 학생에 한한다. 장학금 신청 가능한 장학종류로는 일반장학금, 신학생 장학금, 교역자 자녀 장학금, 장애우 장학금, 다민족 장학금 등이 있다.

일반 장학금은 정규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이거나 입학이 허가된 자를 위한 장학금이며, 신학생 장학금은 신학교 및 신학대학원생 또는 입학이 허가된 자를 위한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이다.

교역자 자녀 장학금은 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며, 장애우 장학금은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생으로 장애우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다. 다민족 장학금은 포모나에 거주하는 다민족으로 정규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의 재학생이나 입학이 허가된 자를 위한 장학금이다.

장학금 신청 마감은 6월 19일까지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인랜드교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받아가거나 홈페이지(www.inlandchurch.org)에서 장학생 모집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는 Inlandchurch(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이며 구비서류는 장학신청서 1부와 성적 증명서 1부, 목사님 추천서 1부, 2009년 수입 세금 보고서, 다민족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포모나 또는 경찰 서장, 소방서장의 추천서 1부 등이다.

문의: 909-622-2324

〈이태근 기자〉

예장 미주총회(합동)와 합동미주총회 통합돼

교단 명칭 미주합동총회, 총회장 문광현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총회(합동)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미주총회가 통합됐다.

양 교단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사랑한인교회(담임 하재식 목사)에서 통합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통합 방법을 위한 논의 후 통합했다. 이로써 양 통합된 7개 노회, 200여개 교회, 250여명의 목사회원이 소속된 교단이 됐다.

양 교단은 통합 후 관건이었던 교단 명칭 선정과 총회장 선출을 가졌다. 총대들의 논의 끝에 총회 명칭은 가칭이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로 정해졌으며 총회장에는 미주총회(합동) 부총회장 문광현 목사, 부총회장에는 합동미주총회 전요한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미주합동총회 총회장 문광현 목사는 취임사에서 "총회장이라는 직분을 맡는 것이 어울리지 않지만 감사하다. 다른 목회자들보다 늦은 50세라는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기에 다른 목회자들보다 2~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부족한 종이 일을 맡게 됐으니 열심히 일해서 한 지붕에 두 가족이 되는 일이 안 나오게끔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 마지막 순서로 양 교단의 통합을 축하예배가 드려졌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부총회장 김삼봉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합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마음으로 총회를 섬길 것"을 당부했다.

〈이태근 기자〉

월드크리스천대학, 2010년도 학위 수여식 가져

월드크리스천대학교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2010년도 학위 수여식 및 졸업 예배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월드크리스천대학 학장 남승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미주 장신대 전 학장 강영찬 목사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 목사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는 항상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고 전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교 연혁 및 학위 보고 후 학사 4명, 박사 9명에게 학위가 전달됐다.

〈이태근 기자〉



월드크리스천대학 학위수여식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 원 자 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선교학과 기독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신대원	신학과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선교학과 기독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 특 전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 구비서류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www.cds.re.kr 대표전화 82-2-3472-3181

'종교화' 된 아이돌 신드롬, 이대로 좋은가



"동방신기가 '진리'"

어느 동방신기 팬의 고백(?)이다. 그야말로 아이돌 전성시대다. 이젠 열풍을 넘어서 신드롬으로 자리잡았다. 방송 3사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해 드라마, 가요 프로그램 등등 아이돌 스타는 브라운관을 점령했다. 뿐만 아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은 의사나 판사, 변호사가 아니다. '연예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수'다. 젊은 세대들은 아이돌 스타에 열광하며, 이제는 자신이 아이돌 스타가 되길 꿈꾼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따르면 영어로 '우상'을 뜻하는 '아이돌'(Teen Idol)은 주로 청소년에게 큰 인기를 얻는 스타를 말한다. 아이돌가수는 철저한 연예기획시스템에 의해 탄생한다. 기획사는 이미지 컨셉을 부여하는 매니지먼트 전략과 그에 맞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 스타일 등을 고민한다. 수려한 외모와 뚜렷한 캐릭터를 가진 스타들이 강렬한 비주얼을 갖추고 카리스마적인 록에 맞춰 춤을 출 때 팬들을 넋을 잃는다.

아이돌 가수의 계보는 '소녀시대'나 '동방신기', 'HOT'를 들 수 있고, 멀리 '서태지와 아이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에는 60년대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고 최근 사망한 마이클 잭슨도 있다. 사망한 스타들은 숭배와 추앙의 대상으로 올라선다.

한국에서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아이돌스타들은 가창력과 같은 음악적인 실력보다 TV 방송을 염두에 둬 외모와 춤실력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에 많은 투자를 한다. 일명 '후크송'이라 불리는 기계음 섞인 중독성 있는 곡들을 현란하고 화려한 댄스와 함께 보여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즉각적 만족과 세뇌효과, 반복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음악들은 동성애와 죽음을 미화하는 등, 성표현과 폭력성도 심각한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데뷔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돌 스타도 나타났다. 여자 아이돌의 경우 미성년자가 노출이 과도한 의상을 입거나 성적인 내용의 가사를 불러 논란이 일기도 한다.

아이돌 스타를 동경하는 청소년들은 기획사 오디션에 합격하기 위해 학업도 포기하고 춤과 노래 연습에만 몰두한다. 대형기획사 오디션에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몰려들어 수십대 일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일부 기획사들은 연예계 데뷔를 미끼로 고액의 비용을 요구한다든지 범죄 행각을 벌이기도 하며, 간혹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 불공정 계약이라는 문제도 불거진다.

청소년 '제자화' … 과도한 팬덤으로 얼룩진 십대문화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아이돌 스타를 동경하고 그들을 모방한다. 이는 일종의 '제자화'와도 같다. 강인중 대표(라이트하우스)는 〈대중음악, 볼륨을 낮춰라〉라는 저서를 통해 "대중음악은 10대와 20대를 동질적으로 묶는 강력한 문화이다. 10대의 가치관과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 대중음악 스타에 의해 규격화, 표준화된다"면서 "아이돌스타는 자신들의 음악과 언행과 패션 등으로 청소년들을 '제자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대중음악과 대중음악 스타는 10대와 20대가 경배(worship)하는 신이다. 콘서트는 그들의 종교적 제의(cult)다. 공연장은 그들의 예배처소와도 같다"면서 "이들이 경배하는 것은 결국 상업주의(돈), 오락, 권력(인기), 세상을 향한 갈망 등이다"라면서 아이돌 신드롬 현상에 내재한 '우상문화'에 대해 지적했다.

이러한 제자화의 정점은 오빠부대, 혹은 팬클럽을 통해 형성된 '팬덤' 문화다.

팬덤은 광신자를 뜻하는 '퍼내틱(fanatic)'의 팬(fan)과 영지·나라 등을 뜻하는 접미사 덤(dom)의 합성어로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현상을 말한다.

아이돌스타의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일상생활을 팬페이지에 올려 공개하고 각종 '직찍'(직접 찍은 사진의 준말)을 공유하는 등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팬픽션(Fan fiction; 동경하는 스타를 주인공으로 팬들이 자신의 뜻대로 창작한 작품, 줄여서 '팬픽')을 읽거나 창작하며 삶의 모든 일정을 스타와 함께하고 '동행(?)'한다. 그들에게 있어 이들 스타는 삶의 '진리'이자 '등불'이며 곧 '신'이다.

때로는 과도한 팬덤문화가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에 대한 비난글이 올라오면 떼로 몰려 즉시 '댓글테러'를 감행한다. 얼마 전 2PM의 재범이 그룹을 탈퇴했을 때, 수많은 팬들은 집단행동을 나서고, 시위에 나서는 등 왜곡된 팬덤문화를 보여 논란이 됐다.

대안문화 생산 위해 기독대중 참여 절실

청소년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아이돌스타에 열광하는 이유는 치열한 교육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대중음악을 통해 해소하려 하는데도 원인이 있다. 게다가 요즘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3-40대 중장년층도 젊음에 대한 보상심리로 아이돌스타에 열광하고 있어 아이돌신드롬을 부추기는 전반적인 사회적 풍토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도를 넘어선 선정성, 팬덤문화, 연예인 우상화 등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만큼 기형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상문화의 폐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제도 차원에서의 해결방안과 아울러 교회도 관심을 갖고 대안문화를 생산하는 문화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 대표는 "청소년기에 한번 길들여진 음악듣기 습관(문화향유태도와 습관)은 일생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다"면서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감각적인 음악의 황홀하고 달콤한 맛에 길들여진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웬만한 것으로는 즐거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된다"고 꼬집었다.

감각적인 대중음악에 염증을 느낀 일부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그나마 대중가요 중에서도 건전가요 같은 '착한 음악'을 듣거나 CCM에서 음악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예배음악 위주로 CCM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크리스천이 부담없이 들을만한 CCM은 고사 직전이다. 마커스 커뮤니티 이창민 팀장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교회에서는 CCM을 듣지만, 일상에서는 아이돌 가수가 부른 대중음악을 듣는 이원론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회음악이 예배에 사용되는 기능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고 음악적 감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만한 다양한 CCM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상문화의 대안으로 CCM문화를 세우기 위해 찬양사역자연합회도 홍대클럽에서 꾸준히 CCM콘서트를 개최하는 중이다. 찬사연 김성호 회장은 "예배음악 외의 CCM을 살리기 위해 콘서트를 열고 있지만, 대중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러한 시도들이 소용없다"면서 크리스천대안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독대중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이미경 기자〉

"천안함 재건조, 국방예산보다는 국민들 땀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천안함 재건조 모금운동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대웅 기자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규탄하고 국민대단합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25일 오후 서울 보신각에서 개최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등이 함께하는 나라사랑범국민운동NGO연대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특히 천안함 재건조 모금운동을 통해 전국민 1천원 모금 대단합을 이뤄내기로 했다.

대회에서 인사말을 전한 이광선 대표회장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만행으로 밝혀졌다"며 "정부의 발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북한을 성토했다. 이 대표회장은 "우리 모두가 참여해 다시는 어떠한 세력의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는 천함을 재건조해야 평화와 안정이 지켜질 수 있다"며 "이는 보복하자는 말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발언에 나선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는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났는데도 분노를 터뜨리지 못하는

▌서경석 목사

"분노하지 않으면 죽은 백성"

지적했다.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것 뿐만 아니라 천안함 희생자들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 목사는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 해체를 중단하고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며, 이번 기회에 친북좌파와 김정일 추종세력을 역사 속에서 영원히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자!'는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성명서에는 "천안함 재건조는 국방예산으로도 얼마든 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이 땀흘려 모금한 성금으로 재건조한다면 국토방위를 위한 군의 정신자세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게 달라질 것"이라며 "또 정부를 향해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을 때까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대웅 기자〉

주택 차압/퇴거 중단

-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어서 불안하신 분
- 은행에서 Notice of Default, Foreclosure Intention, Trustee Sale 통보 받은 분
-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 숏 세일(Short Sale) 진전이 없어 불안하신 분
- 이미 융자 조정, 숏 세일 시도했었으나 실패해서 차압이 임박한 분
- 숏 세일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다시 집을 지키기로 결정하신 분
- Foreclosure(차압)이 끝나고 Eviction(퇴거 명령)을 기다리고 계신 분
- 세컨 홈, 4 Unit, APT, 상업용 건물, 교회...
- Rent로 살던 집이 숏세일이나 은행에 차압(Foreclosure)이 되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할 분

융자조정(후불, 미주 전역)

즉각 차압중단
즉각 퇴거중단

- 현재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으나, 크레딧 손상 없이 페이먼트를 낮추고 싶은 분
- 변동 이자 페이먼트(Option Arm)를 내고 있어서 원금이 늘어나 불안한 분, 30년 고정 프로그램으로 재융자 하고 싶으신 분(NO Tax, Bad Credit OK)
- Obama 법에 의해, 융자 원금 삭감 가능
  (예: 2차 론의 경우, 18만불에서 2만불만 내고 16만불 탕감 받음, 사무실 방문시 모든 성공사례들을 직접 확인시켜 드림)

NO...NO Short Sale : 저희는 절대로 숏 세일을 권유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켜드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WP Lending Inc
3400 W. 6th st., #200, LA, CA 90020
(6가와 카탈리나, MBC 건물)

Paul Lee (폴 리)
213-248-9297

365일 매일 3회 집회가 있는
L.A 대한민국 기도원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신유의 은사로
각종 암병, 중풍, 우울증, 신경통, 당뇨가 치료되며
사명자들은 사명이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됩니다
자녀, 가정, 사업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시간 : 새벽 5시 30분 / 오전 11시, 저녁 7시
예배장소 : 2716 Ellendale Pl., LA, 90007
* 차량픽업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323-734-4599 / 213-725-3007
* 각 분야 봉사자 및 악기 연주자, 사명자들은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구인모집
학교 행정업무 보실수 있는 '이중언어' 사용자 및 컴퓨터 능한자 (40세 미만 환영합니다)

■ 한기총, 정부 4대강 사업 적극 지지 표명

"4대강 사업 중단은 또 다른 환경파괴일 뿐"

"중환자를 수술하면서 환부가 아닌 곳을 다치게 할까봐 의사가 수술을 중단할 순 없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의 말이다. 한기총이 25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한기총은 4대강 사업이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에서 논란이 되자 지난 19일 보(洑) 공사가 진행 중인 한강 3공구 이포보 현장을 시찰, 자체 생태학 분석을 거친 후 이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적극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맨 오른쪽). ⓒ 김진영 기자

한기총은 이 성명서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지지함을 천명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더 이상 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와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지지했다.

특히 한기총은 "이미 진행된 보 건설 작업이 27%의 공정률을 보이는 지금 (작업을)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환경 파괴의 결과만을 남길 수 있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 이광선 목사는 "(4대강 사업을) 지금 중단하면 엄청난 생태학적 환경파괴가 예상된다"며 "사회적 혼란도 야기된다.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을 수술에 비유한 것도 이런 입장의 연장이었다.

불교와 천주교 등 타 종교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선 "일부일 뿐 종교 전체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4대강 사업의 찬성이 한기총의 입장만은 아니라고 이 목사는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결코 반대한다는 소릴 듣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 자리는 한기총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다. 다른 종교와는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 목사는 현재 7대 종단이 포함된 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직에 있다.

아울러 한기총은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소통할 것 △정치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 △종교계는 신앙을 통해 소통의 통로가 되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기총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보를 소속 교단 및 교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와 관련한 집회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광선 목사를 비롯해 정연택 한기총 사무총장, 김운태 한기총 총무, 이영주 한기총 환경위원장, 생태선교회 허재수 목사 등이 참석했다.

〈김진영 기자〉

"2010년은 한국선교 선진화 이루는 전환점"

"18~20세기 서구는 서구교회와 선교방식을 선교지에 그대로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형 선교모델과 선교전략을 세계교회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서구교회가 더 창의적인 선교전략을 개발하는 데 자극과 도전이 될 것이며 2/3세계 교회가 선교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 한정국 목사는 제5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V)를 앞두고 한국형 선교모델과 선교전략을 개발하려는 최근의 노력들이 자칫 국수적으로 비쳐져 오해를 살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할렐루야교회(김상복 목사)에서 열리는 NCOWE V는 한국형 선교모델을 정립하고 분야별 한국형 선교전략과 국제적 선교 협력을 위한 접근 방안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선교적 시도들은 특히 지난 30년 간 2만명의 선교사를 배출했지만 당당히 선교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부족한 한국선교가 2/3세계적 선교에서 탈피하여 선진화를 이루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 목사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서구 선교전략과 선교신학을 그대로 수용하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우리의 선교전략과 선교신학을 공들여 개발해 세계선교에 기여해야 한다"며 "(NCOWE V가 열리는) 2010년은 한국선교계가 선진화로 나아갈 수 있는 '카이로스(Kairos)'의 기간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까지 총 네 차례 개최된 NCOWE는 한국선교를 리서치하여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한국선교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왔다. 특히 제3, 4차 NCOWE에서는 선교사 중복배치 현황, 2030년까지 필요한 선교사수 예측통계 등 한국선교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한국교회 125년 역사 속에 나타난 의미 있는 선교적 통찰이나 한국선교사들에게 적합한 선교모델을 찾는 등 정성적 분석이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 목사는 서구의 선교모델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로 네비우스 정책, 지역분할전략을 들었으며 한국적 상황 속에서 생겨난 선교모델의 좋은 사례로 새벽기도, 가나안 농군학교, 한인디아스포라 교회, 아버지학교, 성시화운동, 이슬비 전도, 고구마전도, 하이패밀리 사역 등을 들었다.

이처럼 한국적 선교모델과 선교전략을 발굴하면 반드시 선교신학적으로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 목사는 "폴 히버트 박사는 모든 나라에 적합한 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도 서구신학을 더 뛰어나고 적합한 것으로 가르치면서 한국적 신학을 개발하는 자신학화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한국선교계도 서구 선교신학과 서구적 패러다임을 따라가면서 한국적 선교신학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고 "한국적 선교모델과 선교전략을 발굴하는 것은 한국적 선교신학을 개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선교사, 선교지도자, 목회자, 선교관심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하게 될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선교신학, 한국형 에딘버러대회, 한국교회 토착화신학,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에 기여한 사례 등을 재조명한 뒤 한국과 세계교회의 동반자선교, 한인디아스포라, 한인선교사 등을 주제로 선교전략을 모색하며 지난 20년 간 가장 많이 다룬 선교이슈 50여 가지에 대한 분과별 전략회의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지역별, 분야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선교사, 선교기관 대표, 선교학자, 목회자 각 3명씩 총 12명이 선언문을 작성해 발표할 계획이다. NCOWE V 총무단 소속 조성택 선교사는 "이번 회의는 많은 선교사들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라 선교사 중심의 행사이며 발제 및 응답, 토의 중심, 한국 중심 행사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한정국 목사는 "이번 회의 결과를 한국뿐 아니라 영어 자료로 발간해 한국교회의 사례에서 선교적 통찰을 얻으려는 많은 나라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한정국 목사, '한국형 에딘버러대회' NCOWE V 동참 요청



KWMA 사무총장 한정국 목사 ⓒ이지희 기자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지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KUMC "교회를 세우소서" 부흥회로 연합



예수사랑교회에서 열린 첫날 부흥회에 이 지역 KUMC 교회 성도들이 참석해 예수사랑교회를 격려하며 함께 은혜 받았다.

개척교회 돕기 위한 연합 집회 주목

최근 시카고 교계의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로 끈끈한 결속을 과시했던 시카고 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이번에는 개척교회 부흥회로 다시 한번 연합의 힘을 보여 줬다. 이번 부흥회는 교회들이 연합하되, 이웃 개척교회를 돕는다는 목적 아래 연합하는 것이기에 더 큰 주목을 받았다. 교회 간의 경쟁이 심한 이민교회 현실에서 같은 교단일지라도 타 교회를 돕는 모임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번 "교회를 세우소서" 부흥회는 근래 새롭게 개척, 혹은 재개척된 예수사랑교회(윤국진 목사), 배링톤양의문교회(우민혁 목사), 올랜도팍제일감리교회(이영태 목사)에서 3일간 돌아가며 행사를 개최하며 부흥회 당일에 그 지역 인근의 다른 교회 성도들이 부흥회에 참석해 격려해 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연합 부흥회는 첫날인 21일부터 뜨거운 열기 가운데 시작됐다. 예수사랑교회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8237 Kenton Ave. Skokie의 건물은 제일 앞좌석부터 제일 뒷좌석까지 모두 채워졌고 예수사랑교회 교회 인근의 연합감리교단 교회들로부터 성도들이 참석했다. 예수사랑교회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고 제일연합감리교회 성가대가 참석해 특별 찬양을 불렀다. 글렌브룩교회에서 헌금 봉헌 찬양을 맡았고 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회장인 우경아 목사가 대표기도, 갈릴리교회 이경희 목사가 축도했다.

22일 배링톤양의문교회에서 열린 부흥회는 샘물교회 박미숙 목사의 기도, 중앙감리교회 성가대의 찬양, 살렘교회의 봉헌 찬양, 비전교회 장순창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고, 23일 마지막날 올랜도팍제일교회에서 열린 부흥회는 하이드팍한인교회 엄모성 전도사의 기도,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성가대의 찬양, 네이퍼빌교회의 봉헌 찬양, 정희수 감독의 격려와 축도로 진행됐다. 강사 이승우 목사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초대받았습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에게 뜨거운 은혜를 선사했다.

한편, 최근 연합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은 오는 6월 25일 오후 8시 부흥과 치유를 위한 기도축제를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다니엘, 에스더 같은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로



시카고한인교회가 조기 유학생들을 찾아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카고한인교회, 한국인 조기유학생 돕기 시작

매년 2만명에 달하는 미국행 한국인 조기 유학생들. 자녀들이 어릴 때 영어와 미국 문화를 습득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상당수의 조기 유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떨어진 외로움과 문화적 충격,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미주 한인교회 입장에서는 한국의 영어 광풍을 비판하거나 조기 유학생의 고충을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닌 시급한 과제가 있다. 바로 그들을 신앙으로 잘 붙들어 주어 '글로벌 리더', 그 중에도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일이다.

최근 시카고한인교회가 아이오와 주 워커 시에 소재한 코너크리스천스쿨을 방문해 그곳에서 공부 중인 한국인 조기 유학생들을 신앙 안에서 격려하고 돌아왔다. 시카고에서 4시간 가량 떨어진 한적한 전원 마을에 위치한 이 학교는 한국인 중고등학생 조기 유학생 17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부하고 있다. 지난 한 학기를 보내며 학교 밖으로부터 한국인의 방문을 받거나 한국 음식을 먹은 기억이 없었던 한인 유학생들에게 시카고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방문은 반가움 그 자체였다. 서창권 담임목사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들의 신앙과 학업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교회 측은 "조기 유학생들을 부적응으로부터 보호하고 미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장점을 동시에 갖춘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로 길러내는 일은 미주 한인교회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명"이라 밝혔다. 향후 시카고한인교회는 정기적으로 이 학교를 방문해 한인 조기 유학생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자처하기로 했다. 또 시카고한인교회가 운영 중인 아이티의 필라델피아크리스천스쿨을 발전시키기 위한 리소스를 이 학교로부터 제공받기로 했다.

〈김준형 기자〉

방학동안 청소년들의 뜨거운 부흥이 이곳에

중서부 SFC, 알칸사에서 수련회 개최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산하 학생선교단체인 SFC(학생신앙운동, Student For Christ)가 매년 개최하는 중부지역 중고등부 수련회가 올해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알칸사 리틀락 4H센터(www.arkansas4hcenter.org)에서 열린다.

매년 동부, 서부, 중부, 북부 등 4 지역으로 나뉘어 열리는 SFC 수련회는 올해로 16년을 맞이했다. 4년마다 미 전역의 SFC 학생들과 전세계의 SFC 지도자들이 참석해 열리는 미주 수련회는 2천명 이상이 참석할만큼 대형 규모로 열린다. 강사도 1.5세, 2세 청소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유명 강사를 초교파적으로 초청해 강연을 듣고 있다.

올해의 주제 "Defy the World and Follow Jesus"를 이끌 주강사는 필라제일장로교회 EM을 맡고 있는 쟌 오(John O) 목사다. 그는 펜실베니아대학교를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M.Div.와 Ph.D.를 마쳤다. 이번 대회의 대회장을 맡고 있는 여수룬교회 전성철 목사는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을 훈련받는 좋은 기회"라며 "교단을 초월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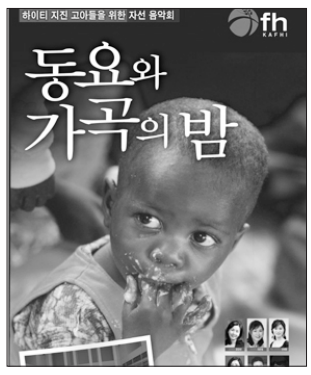
〈김준형 기자〉

어린이가 노래하는 아이티 친구 돕기

아이티를 흔들던 지진은 이미 5개월 전에 끝났지만 그 지진의 상처는 여전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국제기아대책기구 미주한인본부가 5월 28일 오후 8시 훼로쉽교회(665 Grand Canyon St. Hoffman Estate, IL 60169 김형균 목사 시무)에서 "아이티 지진 고아들을 위한 자선음악회, 동요와 가곡의 밤"을 열고 아이티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을 모은다.

국제기아대책기구는 아이티 지진 후 긴급구호와 복구를 위해 5백만불을 지원했다. 이중 미주한인본부는 긴급구호팀과 의료팀을 3월에 이미 파송했으며 오는 6월 14일, 6월 19일 각각 또 파송한다.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아이티 고아들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된다. 국제기아대책 측도 현지 어린이들의 열악한 식량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매월 30불로 정기후원하는 결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2010 시카고동요대회 입상자들이 출연해 같은 또래의 아이티 친구들을 돕기 위해 노래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어린이들의 이런 사랑에 동참하며 이를 격려하기 위해 시카고의 중견 성악인들도 연주에 나선다. 음악회 입장은 무료이며 음악회 시간에 헌금을 하는 형식으로 모금이 이뤄진다. 정승호 선교국장은 "사랑과 나눔을 노래하는 어린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전하려는 사랑과 희망에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김인선, 라은실, 메조 소프라노 신혜정, 홍선희, 테너 진철민, 바리톤 김기봉, 피아노 윤세라, 정지숙이 참여하며 동요를 부르는 강준(9살), 김나연(4살), 김지혜(9살), 김혜은(7살), 심서린(8살), 이예원(11살), 이예린(14살), 임해인(8살), 조단 우(10살), 최예진(7살) 등 어린이는 미주국제기아대책기구의 홍보대사 상장을 받는다.



이번 음악회의 포스터

〈김준형 기자〉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후원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교회
담임 :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오전 11:00
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0:00
영어장년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그레이스마운트교회
담임 : 김기한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3550 W. 6th St, LA, CA 90020
T. (213) 448-9999



나성소망교회
담임 : 김재울 목사

주일기도회 오전 9:50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토요모임(중등부) 오후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 (213) 550-73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 박헌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 EM 오후 1:45
4부 청년 오후 2: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2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주일찬양 오후 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 박용덕 목사

1부 예배 : 오전 8:00
2부 예배 : 오전 11:30
수요예배 :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 오전5:30
Youth 예배 : 오전10:30
영어(EM)예배 :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흉장로교회
담임 :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주일예배오전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15
5부예배 오후 2:30
E,M 오후 12: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 www.omc.org



드림교회
담임 :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EM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T. (213)-975-1111/ F. (213)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519 Western Ave, LA ,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삼성장로교회
담임 :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2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운타운 4가 Crocker St.)
1부거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 정 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2부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주일) 오전 6: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경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쉼있는교회
담임 :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토)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중앙교회
담임 :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995-2868/ F.(714)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45
3부EM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30
오후예배 오후 2:00
영어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 한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생장로교회
담임 :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오렌지새영교회
담임 : 임병철 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1:00
셀모임 오전 7:00(토)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315 S Knott Ave #206 Anaheim, CA 92804
T. (714) 900-1008



은혜한인교회
담임 :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 안충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후 1:15
청년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교회
담임 : 이승준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수요예배 오후 7:00
청년예배 오후 7:00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213) 739-0515



웰셔크리스천교회
담임 :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EM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 장춘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축복교회
담임 :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Cell Church (금) 오후 8:00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리더쉽 트레이닝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교회
담임 :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칠로우쉽홀)
정오 12:30 (본당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7:45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하나로교회
담임 : 박문환 목사

1부예배 오전 8:40
2부예배 오전 10:40
3부예배 오후 2:00
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233 English Rd. Chino Hills, CA 91709
T. (909) 464-9210 / F. (909) 548-4536

함께하는교회
담임 : 최성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3부영어예배 오후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헤브론교회
담임 :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45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1:00
수요워쉽콘서트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 (323) 735-8677 / F. (323) 735-9606

SL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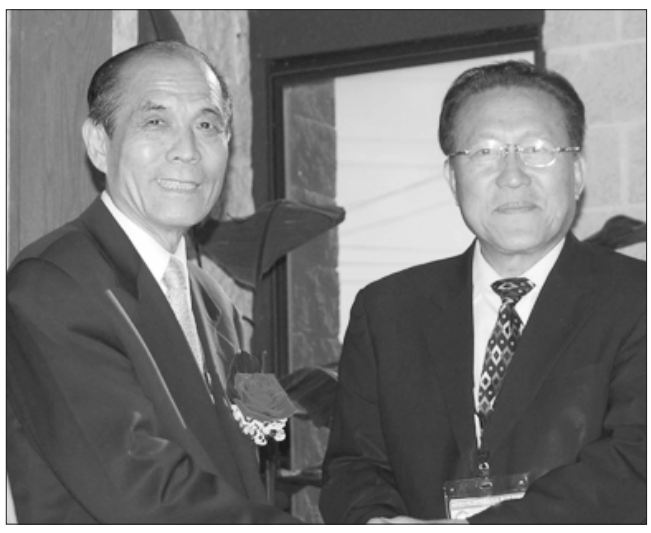
■ 제12회 총회 개최 ■

미기총 회장 장석진 목사

미주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장석진 목사가 당선됐다.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KCCA, 이하 미기총)는 24일 뉴욕성결교회(담임 장석진 목사)에서 '미주 한인 교회의 일치와 영적 대각성'를 주제로 제12차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회원 19명을 비롯해 30명이 참가했다.

장석진 목사는 "부족하고 보잘 것 없으나 미기총이 창립할 때 회원으로 섬겼기 때문에 오늘 귀한 영광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는다"며 "증경회장님과 직전 회장님이 쌓아놓은 모든 기반을 기초로해서 한 해동안 헌신해서 힘껏 봉사하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미기총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가장 먼저 미기총을 상징하는 깃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진 목사는 "임원진과 함께 기도하면서 미기총이 위상을 널리 드러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해서 미주 교회들이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힘써 일하겠다"고 전했다.



전임회장 이영섭 목사(좌)와 신임회장 장석진 목사(우)가 악수하고 있다.

증경회장 방지각 목사는 개회예배에서 '영적 지도자의 자세(살전 5:16-19)' 설교를 전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항상 즐거워하라.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목회자들은 미주 교계 일치와 연합을 위해(공동회장 김대승 목사)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해(총무 김영길 목사)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최한용 목사) 미주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해(김동욱 목사) 특별히 기도했다.

김원기 목사는 "미주 한인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김해종 목사는 "연합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인 교회를 대표해 주류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서 비전을 갖고 나가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미주한기총은 2008, 2009년도 회기를 통해 웹사이트 개설, IMIC 국제 기독교 선교대학 학생 모집, 파이오니어 잡지 발간, 미주 한인 교회 1백년사 편찬 자료 수집 등과 함께 조국과 민족 위한 구국기도회 전개, 해외동포의날 제정 추진을 발표하고 추석, 한글날 지키기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쳤다.

2010년에는 8500불의 예산을 세웠다. 이와 함께 각 지역 교회 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목회자 윤리 강령 실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복음화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추진, 평신도 지도자 연합회 수련회 개최, 훌륭한 크리스챤상 시상 등을 통해 평신도의 활발한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미주한기총은 1997년 5월 시카고에서 미주 교계 일치와 연합, 미주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화를 기치에 두고 창립했다.

〈윤주이 기자〉

2010 INPASS FESTIVAL

제7회 국제 청소년 찬양축제



2010 인패스 페스티발이 5월 18일 워싱턴 DC내 케네디 센타 테라스 극장에서 열렸다.

수준 높은 찬양과 연주로 감동 선사

2010년 인패스 페스티발(INPASS FESTIVAL, 제7회 국제 청소년 찬양축제)이 5월 18일(화) 저녁 7시30분 워싱턴 DC 소재 케네디 센타 테라스 극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찬양 축제에는 미주 10개 도시, 한국, 중국 등에서 각기 예선과 본선을 치룬후 각 지역 대상을 수상한 청소년 음악 영재들이 초청됐으며, 워싱턴 지역에서는 Eugene Cho, Lindsay Kim, Grace Min, Hansae Kwon, Eugene Choo, Hayoung Shin, Yunji Im 등이 초청됐다. '전석 매진'이라는 축복을 받은 이번 찬양 축제는 KARIS ENSEMBLE과 SOOBEEN LIM(바이올린)의 협연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You Raise Me Up"으로 청중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TIMOTHY CHA(피아노), HAYOUNG SHIN(피아노), TIFFANY KIM(바이올린), TIMOTHY KUK(피아노), YUNJI IM(피아노), HYUNWOO JUN(피아노), HYOYOUNG JOUNG(피아노), HYUNJI LIM(바이올린), LINDSAY KIM(성악), KATHERINE WOO(바이올린), GRACE MIN(플룻), HANSAE KWON(바이올린), COLIN CHOI(피아노), EUGENE CHOO(바이올린), EUJENE CHO(첼로), AGAPE ENSEMBLE 등이 연주했으며, 인터미션 후에는 ELISE HAUKENES, CHRISTIAN DREAM YOUTH ORCHESTRA/ADYO 등이 연주했다.

조지아대회 대상 수상자인 캐더린 우(4) 양은 2010년 베스트 퍼포머로 선정되어 1000불의 장학금을 부상으로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9일로 예정됐다가 100년만의 폭설로 연기되었던 아픔과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딛고 다시 일어나 마련된 이번 찬양 축제에는 워싱턴교협, 미주한인재단 등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국 인사들도 참여해 수준높은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마음껏 축하했다. 찬양 축제를 성황리에 마친 정정호 대표는 " 이 놀라운 축복이 더욱 두려운 것은 지금은 시작일뿐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조요한 기자〉

문성록 목사 "잠재력 발휘를 위해 총결집할 때"

전문선교사 양성, 신학교 발전, 아름다운 총회 만들고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34대 총회장에 문성록 목사(포코노한인장로교회 담임)가 당선됐다. 그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오늘까지 총회를 이끌어주신 역대 총회장 여러분들이 일궈놓은 든든한 터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1년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를 이끌 그는 올해 회의 주제인 '여호와를 위하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총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 목사는 "부단히 변화하고 개혁해 교단 위상을 높여 새롭게 거듭나는 획기적인 일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성록 목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미주 전역 600여 교회, 26개 노회, 1,200여 명의 목회자 및 선교사 등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동적인 잠재력이 발휘되어야 한다"며 "사소하고 지엽적인 일에 응집력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올해 목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다.

첫째 교단 정체성을 지닌 전문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이다. "바라기로는 총회 직영 선교사 훈련원을 세워서 교육, 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우리 교단 선교사'라는 자부심,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당장 이뤄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기초는 놓으려고 합니다"

둘째는 교단 신학교가 보수 신학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총회 행정력을 동원하는 일이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산하에는 현재 국제개혁대학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중부개혁장로회신학교, 캘리포니아개혁신학대학교 등 4개 신학교가 있다. 문 목사는 신학교의 제도 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통일된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각 학교가 독자적인 방식을 갖고 가기보다는 하나의 커리큘럼을 갖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수진의 상향평준화, 도서관과 수업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영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문성록 목사

셋째는 전국 노회 행정통일안을 마련, 시행하는 일이다. 넷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선배는 후배를 세워주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는 아름다운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쓰고자 한다.

〈윤주이 기자〉

여드름 완치!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해독+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Tel. 213-380-0835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뉴비전교회, 26일 교회재직회 통해 추후 논의사항 회의

진재혁 목사,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

진재혁 목사(뉴비전교회)는 23일 뉴비전교회 주일예배 설교에서 여름단기선교파송과 더불어 지구촌교회 이동원목사 후임 담임목회자로 결정된 것에 관련해 입장과 소감을 밝혔다.

그는 "교인 중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후임으로 결정됐다는 통지가 지난 주일에 전해왔고 나에겐 큰 충격이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놀란 교인들도 많을 것 같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후임 후보자가 두명으로 좁혀져가고 있을 때에 명단에 내가 포함돼있다고 듣게 됐다. 내 스스로 청빙을 지원한적이 없었고 당시에 나에게 설마 지구촌교회담임목회직이 주어질까 감히 생각도 못했다. 안될 가능성이 많은데 교인들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 부임한지 6년째이고, 첫 담임목회지이기도 한 뉴비전교회를 지금까지 감당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려운 점도 있었다. 나는 6년동안 많은 배움과 축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진재혁 목사는 "이민교회를 향한 꿈을 여러분과 같이 꾸기 시작했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대해 같이 꿈꾸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주고 축복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열심히 뛰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뉴비전교회가 이제는 든든해진 리더십, 건강하고 성숙하고 풍성한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낀다"며 "이제는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 생각하고 순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당면한 상황, 반기독교세력 움직임, 교회에 대한 일방적 비판 생각하며 ...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떠올랐다진 목사는 "최근 한국 정치 등 당면한 상황을 생각하면 답답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대형교회를 비롯한 많은 한국교회들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만신창이 되고 있다. '주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세상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교회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얼마나 겸손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생각하며 고민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내게는 걱정과 두려움이 서는 자리이다. 생소하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는 만큼, 앞의 일을 알지못하고 부르심으로 알고 순종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진재혁 목사(뉴비전교회)는 23일 뉴비전교회 주일예배 설교에서 여름단기선교파송과 더불어 지구촌교회 이동원목사 후임 담임목회자로 결정된 것에 관련해 입장과 소감을 밝혔다.

진재혁 목사는 "언더우드선교사의 조선을 향한 기도가 생각났다.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의 속내를 알 수 없다고 했고 앞이 보이지 않고 무슨 일을 해야할지도 몰랐지만 믿음으로 앞날을 보고 희망으로 한국을 바라보았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안디옥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듯이, 저희 가정을 축복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좋겠다.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는다. 순종하고 나가려고 한다"며 "지금까지 뉴비전교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되길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재직회통해 추후논의사항 결정

진재혁 목사는 "26일에 뉴비전교회 제직들이 함께 모여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 더 성숙하고 질서있는 모습으로 덕울 세우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안디옥교회처럼, 오늘 파송하는 단기선교팀처럼 축복해주시면 좋겠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뉴비전교회가 이와 함께 선교에 대한 중보기도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형진 기자〉



샌프란시스코제일침례교회 전경

샌프란시스코제일침례교회, 창립최초 자체 예배당 마련

축제 분위기 가득, 새로운 부흥의 전기 마련될 듯

샌프란시스코제일침례교회(이중직 목사 시무)가 창립 최초로 37년만에 자체 예배당을 마련, 5월 30일 새 예배당에서 첫 주일예배를 드린다.

2007년부터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힐사이드초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오던 샌프란시스코제일침례교회는 최근 데일리 시티에 소재한 예배당 건물을 소개받아 일사천리로 건물을 구입, 4월 30일 교회 재산으로 카운티에 등록했다.

샌프란시스코제일침례교회가 구입한 건물은 해안가에 위치한 예배당으로 본래 사모아인들이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예배당 용도로 건축되어 사용되온 건물인만큼 구입 당시 얼마간의 보수작업만 마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상태였다.

최초로 자체 예배당을 구입한 샌프란시스코제일침례교회의 전교인은 그간 기쁜 마음으로 합심해 페인트칠 등 예배당 보수작업에 전념해왔다.

본래 교육사역센터 구입을 추진하던 샌프란시스코제일침례교회는 뜻하지 않게 10명의 새가족들이 침례를 받던 침례예식 당일 최적의 조건을 갖춘 예배당을 발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다.

사우스샌프란시스코 예배당에서의 마지막 예배가 드려지던 5월 23일 교인들은 창립후 최초로 자체 예배당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샌프란시스코제일침례교회는 금번 새 예배당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임형진 기자〉

유니썬, 4회 크리스천청소년연합집회 개최

제4회 크리스찬 청소년연합집회 유니썬(UNI-SON)이 22일 산호제새소망교회(이경렬 목사)에서 오후 2시부터 열렸다.

이번 행사는 1부 워크샵, 2부 선교집회 순으로 진행됐다. Ron Aleman 목사(Cathedral Of Faith 교회 유스부)가 'Who is rich?'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2부순서에서 마임, 스킷드라마, 선교간증, 개인간증, 찬양공연, 랩 등 알차고 다양한 무대가 선보였다. 특히 설교를 전한 Ron Aleman 목사는 Cathedral Of Faith 소속 찬양단원을 이끌고 와서 풍성한 무대를 만들었다.

이번 공연은 창조와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다룬 마임, 죄인을 새장안에 갇혀있는 존재로 표현한 스킷드라마 '새장', 즉흥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랩을 펼친 무대, 선교에 대한 간증과 열정을 전한 소감 등 이날 출연한 청소년들은 다채롭고 깊이있는 복음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

이번 기독청년집회는 특별히 한인 2세보다 타민족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이 참석했다. 북가주 청소년연합집회 유니슨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네트워크 반경이 중국, 베트남 민족 등을 포함한 타민족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한인 2세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번 크리스천 청소년연합집회를 주최한 CENT(청소년전도극단)김애경 단장은 "열심히 준비한 CENT 청소년 단원들이 한인과 타민족이 절반씩 섞여있다. 다민족화되는 현상이 고무적이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연합행사에 많은 한인 2세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임형진 기자〉

KPC 남선교연합회 무료의료봉사 성황

미국장로교(PCUSA) 서북미 한인교회협의회(KPC 회장 노광현 목사) 남선교회연합회(회장 김길수 장로)는 지난 22일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진료는 개진 초반부터 등록하려는 사람들로 성황을 이뤘고 300여 명의 사람들이 의사를 만나 도움을 받았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KPC 산하 교회 의료진에 대학동문연합 의료진까지 참여하며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의료봉사에 참여한 의사들은 병원에서 보유한 약을 가져왔고 초음파, 심전도, 골밀도 측정 장비까지 동원하며 환자 진료에 정성을 쏟았다.



KPC 남선교연합회 무료의료봉사

진료 과목은 내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안과, 한방치료, 척추교정, 치과, 초음파, 혈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 검사 설명, 골다공증 측정 등이었다. 의료봉사를 준비한 KPC 남선교회 김길수 장로는 "보험이 없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가을 의료봉사에는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오셔서 좋은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현순호 칼럼



현 순 호 목사
전) 미국장로교회 중서부
지역 한인교회 총무

결혼을 꼭 해야 하나?

가정의 달에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결혼은 꼭 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또 결혼을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 일생동안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근래는 결혼을 안 하고 같이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유는 편안하고 자유롭기 때문이란다. 결혼하면 그 날부터 먹는 것을 위시해서 모든 것을 혼자 결정 하지 못하고 상대자의 눈치를 보고 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감옥 같다는 것이다.

더욱이 애가 생기면 양육시켜 학교 보내고 졸업 후에는 시집 장가보내며 아파트라도 마련해 주는 일이 부모로써는 골병드는 일이란다. 짧은 인생을 그렇게 고생하며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묘한 것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연인들이 있어 서로 침식을 같이하고 여행하고 다른 부부와 별로 다른 점이 없다. 그러나 크게 다른 점은 서로 상대방의 생활을 간섭하지 않고 어린이가 없고 더욱 어떤 책임도 의무도 서로 지지 않고 사는 것이다.

필자가 사는 캘리포니아에는 유난히 동성연애자들이 많아 그런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출되고 성공회 신부나 신교의 목사가 나오고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형의 독신자 그룹이 있다. 즉 거룩한 성직을 위해 일평생 독신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도와 찬양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약자들을 섬기기 위한 성직자들, 신부와 수녀 수도사 들이다. 또 있다, 일부이지만 자기의 전문 분야에 전념하기 위한 독신자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자신들은 녹아 없어지는 초가 되는 성자들이다.

성경은 1남 1녀가 때를 따라 결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르치고 있다.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신 창조주께서는 여자를 배필로 만들어 남자 아담과 같이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 주셨다. 그 원리를 신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나이가 차면 남녀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처럼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첫 기적은 가나 지방의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축하하시며 포도주가 다 없어진 빈 항아리에 물로 포도주를 대신 만들어 축하객들을 흥겹게 해 주신 일이다. 그러기에 기독교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하는 것을 독려도 하지만 더욱 강조하는 점은 헤어지지 말고 계속 행복한 가정을 잘 꾸며 나가는 결혼 생활을 주문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후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품어주는 포용과 관용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때는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합의를 이루어 가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산적인 삶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회를 위한 섬김이 있을 때 그 부부는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집사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공부를 많이 못 했다. 그러기에 그는 어려서부터 안 해 본 일이 없이 고생을 했다.

그의 성실함을 보고 이웃이 중매를 해서 한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자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 우리도 남처럼 잘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다른 사람처럼 잘 살기도 하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우며 교회에서는 숨은 봉사자가 되자라는 서약이었다. 그 다짐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집사는 한 직장에 일용직으로 들어가 30여년 있으면서 그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이 성실하게 일해서 정년이 지났으나 계속 일 하도록 직장에서 배려해 주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복이다. 섬기는 교회에서는 숨은 보배로 통한다. 결혼생활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로 반려자를 기쁘게 하고 나아가서는 이웃을 섬기는 부부가 될 때 그 곳에 천국이 이뤄진다.

진유철 칼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의욕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지난 주간에 대만에서 승객 5백 명을 싣고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을 운전하던 기관사가 13분 동안이나 졸음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열차는 자동장치에 의해 운전되었고 기관사는 해고되었습니다. 기관사는 운전을 잘하겠다는 의욕을 불태우며 약을 먹으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잘하겠다는 의욕은 있었지만 실력이 없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고 실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영원까지 결정짓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교회를 섬기는 일도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와 싸우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나 선교도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빛 되고 소금된 삶도 의욕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실력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실력이 없이 진정한 승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말씀으로만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중요한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가 홀로 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떨어져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다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뜨거운 불을 붙이는 기도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리듬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만의 리듬, 자기 리듬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기도는 오랜, 깊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다 잠든 제자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다시 와서 깨우며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변화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응(Reaction)과 행동(Action)은 다릅니다. 반응(Reaction)은 남이 하는 다른 행동에 대한 어떤 작용에 불과이지만 행동(Action)은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하자"하면서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Action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장세규 칼럼



장 세 규 목사
한빛지구촌교회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교회

어떤 광고는 필요없는 광고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 공군이 사용하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의 광고입니다. 광고는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공중파 텔리비전을 통해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내 보냅니다. 광고는 이 회사가 만들게 될 최첨단의 전투기를 보여 줍니다. 이 전투기는 아직도 개발 중입니다. 미래에 미 공군이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하늘을 지키는 회사, 자유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회사로 울림을 실어서 광고를 합니다.

왜 이런 광고를 내 보낼까? 이 회사는 시청자들에게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주 고객은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에도 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만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 고객인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굳이 프라임 타임에 광고를 내 보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광고를 내 보내는 것일까요?

어쩌면 회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했다고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이미지도 그 회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높인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돌아 올 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광고가 의도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공개된 회사들입니다. 일반인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시장에서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회사의 주주가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의 가치를 인정하여 새로운 투자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개된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는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에 따라 교회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달라지겠지만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교회는 교회 밖을 향해서도 그 속을 공개해야 하는 암묵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고객, 잠재적인 투자자, 잠재적인 주인으로 여긴다면 교회는 사회의 상식이 요구하는 선 이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다가가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삶으로, 마음으로, 신앙으로 투자하기를 기대한다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따로 세우신 거룩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교회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고객이요 투자자요 주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필요 이상으로 세상에 다가가야 합니다.



방동섭 칼럼



방 동 섭 목사
미주성산교회 담임

언어는 축복의 통로

독일 한 도시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함부르크에 출장을 갔다가 한 상인의 딸이었던 아리따운 처녀를 만나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얼굴도 잘 생기지 못했고, 체구도 작은데다, 기이한 모습의 꼽추였기에 그 아리따운 처녀는 그 초라한 청년에게 눈길조차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야하는 마지막 시간에 그 청년은 용기를 내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만나 몇 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그녀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마지막으로 그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결혼할 배우자를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 믿나요?" "그런데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녀는 차갑게 대답하였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미래의 신부를 정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너의 미래의 신부는 꼽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때 "하나님 안 됩니다. 그 여인이 꼽추가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차라리 나를 꼽추로 만들어 주시고 나의 신부는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는 꼽추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 청년의 순수한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훗날 그녀는 그 청년의 헌신적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세 멘델스존이었습니다.

언어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만일 모세 멘델스존이 그토록 아름다운 언어로 그녀에게 나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혼식를 하고, 젊은 남녀가 맞선을 볼 때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 그의 존재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쓰는 언어가 그의 때마다 울려 퍼지는 결혼 행진곡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인간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을 봐서는 잘 모르지만 말을 시켜보고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용할 때 인터뷰 인격을 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축복의 언어를 써야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부모의 책임 중에 가장 큰 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사용해야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심하게 꾸짖으면서 "입닥쳐!"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후에 충격을 받아 자폐증 장애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과 친구들을 향해서도 축복하면서 살아야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자꾸 저주하면 그것이 나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는 설득의 시대라고 합니다. 설득은 언어가 마음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내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통하지 않으면 괜히 마음까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유창하게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통하는 언어를 쓰라"는 말입니다. 단지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수다쟁이가 되거나 기껏 상대방을 위해 해준다는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말을 잘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남을 세워주고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인수 칼럼



정 인 수 목사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리더십 개발에 강한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 사역을 하다보면 늘 능력 있는 사역의 손길이 아쉬워진다.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전문성 있는 사역자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기 교회에 맞는 사역자를 외부에서 불러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그것이 유급 사역자인 경우 요즘 같이 경제난에서 교회 재정에 부담을 더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리더십 개발에 강한 교회는 외부에서 사역자를 데려오기 보다는 내부 평신도 사역자를 오랫동안 훈련시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할 수가 있다.

리더십의 정상이라 부르는 새들백 교회는 훈련된 평신도 리더의 헌신이 돋보이는 교회이다. 이 교회에는 따로 직분이나 명칭을 주지 않아도 탁월하게 전문성 있게 사역하는 7천 명 가량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은사를 바쳐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한다.

우리 한인 교회들도 이러한 내부적인 리더들을 더 개발하고 더 활용해야 한다. 요즘같이 장기적인 불황이 계속되어 유급 사역자를 구조 조정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을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명제적인 제자 훈련만이 아닌 이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리더십 훈련을 해야 한다. 이러한 훈련들은 실제적인 사역의 전방위 현장에서 유용성 있게 발휘된다.

더구나 내부에서 훈련된 리더들은 교회와 교인 사정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 사역이 효율성 있게 진행된다.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을 훈련시키려면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훈련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양육시킬 수 없다.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평생 배움의 현장에 나가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도전시켜야 한다.

매주 혹은 매달에 한 번씩 이러한 평신도 리더들을 모아 놓고 교회의 상황에 맞는 리더십 훈련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이들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 후 현장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사역 현장에 필요한 기술들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감성, 관계 및 의사소통의 시대에 보다 섬기는 마음, 대인관계에 유연한 감성의 리더, 자신의 비전과 의사를 명료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 기술, 코칭과 멘토링의 리더십 등으로 무장된 새로운 평신도 리더십 세대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 그래야 한국 교회의 내일에 소망이 동튼다.

한방 칼럼



이 명 종 교수
LA 동국대 한의대학 재활학과

아직 무릎 아플 나이가 아닌데…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보통 연세 많은 어르신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젊은이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 슬통 즉 무릎통증입니다.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 사람이나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 안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부족 때문인가 아니면 최근의 과로 탓인가 하고 넘기지만, 이런 일이 잦게 되면 '연골연화증'이란 병을 의심할 수 있어요.

쪼그려 앉아 일을 장시간 하거나 극장 같은 곳에서 불편한 자세로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 순간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원인인데, 이는 무릎에 체중이 많이 실리거나 과도하게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 무릎을 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면서 힘을 잘 받지 못해서 무릎관절 자체에 큰 부담이 가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초기에는 근육이나 인대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므로 다리의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만으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어, 자전거 타기나 걷기 달리기 등이 좋은 치료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매번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관절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오래 지속되어 관절의 손상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데 이를 연골연화증이라 하고 이는 다시 퇴행성관절염으로 쉽사리 이어지게 됩니다.

이 병은 무릎을 덮고 있는 슬개골의 연골부위가 탄력을 잃고 퇴행성 변화 즉 낡고 늙어가는 것이므로, 이 단계가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장시간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자세는 허벅지 앞쪽의 큰 근육(대퇴사두근)이 늘어나 힘을 잘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럴 때는 의자에 앉은 채로 힘주어 무릎을 펴주는 동작을 반복해주면 허벅지 뒤쪽 근육(대퇴후근)이 스트레칭 되면서 동시에 앞쪽근육의 힘을 키울 수 있어 퇴행성 변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릎통증의 흔한 원인은 체중증가입니다. 체중이 늘면 몸매가 흐트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릎과 허리에 무게가 더 실리기 때문에 특히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기 쉽지요. 갑자기 늘어난 체중으로 인해 무릎 관절 내의 혈액순환이나 관절액의 순환이 원활해지지 않게 되는 것 역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늘어난 체중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은 몸의 활동량을 음식섭취량보다 많게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걷기와 같은 유산소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 있어 좋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늘면 숨쉬고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휴식하는 안정 시에도 열량의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하여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것이 운동량을 줄이고 식사량만을 줄이는 방법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을 비롯한 관절조직의 주성분인 교질(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인 뼈째 먹는 생선, 도가니탕 등의 음식을 평상시 자주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라임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베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훼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김기형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정직·신용·믿음으로 모시겠습니다
213.453.59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 시내 ■ 장거리 ■ 귀국 ■ 사무실 ■ 창고이전 ■ 포장이사
행복 이삿짐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항상 미소를... 항상 정성을... 항상 친절을...
작은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Tel. 323-733-2433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온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온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
JAMES JHUNG (제임스 정)
EXECUTIVE DIRECTOR
Tel : 213. 725. 7217 ····· 세일즈 하실분 모집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CD - DVD
▪ 영상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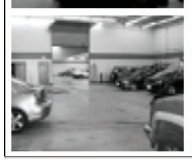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1-15 South Exit Main Street

SK smart-naephone
☑ SK한국전화기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 분당 2¢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 213-435-0608




반값으로 할수있다!
-차바디수리 50% 절약-
"획기적인 바디수리 시스템"
오토맥스 오토바디
213-265-8485, 213-388-4464
Main Office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철공·콘크리트
휀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조경공사·랜드스캐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909-5518

자체사옥, 자체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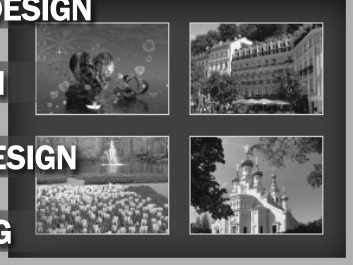
전 미주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는 현대통운의 지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타주 이사 시내 이사 귀국 이사
무료전화 1-866-545-2424
323.766.1111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e-mail : skook@hyundaemoving.com
현대통운 www.HyundaeMoving.com

LANCE WANG
커텐
Window Treate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텐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숀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가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MR박을 찾아주세요!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한국 ₩ ⟷ $ 미국
당일 동시 (고액 전문)
(213) 388 - 4989
소액도 가능합니다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PERMIT DRAWING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 컴퓨터 개인교습도 가능합니다.
Subject :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Photoshop, Illustrator, Webdesign course
Tel. 213-284-4111

K.KOH 루핑 Ll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 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컴퓨터 HIS COM 출장수리전문
오픈기념 세일 컴퓨터 수리 start $29

• 컴퓨터 판매, 수리
• 컴퓨터 조립, 공유, 수리, 파일백업 및 관리
• DVR/IP CAMERA
• 4CH DVR $1,199
213-810-4000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중고 유리
◆ 넓은 웨어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전화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페니쉬,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돌 맞은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냉난방기 설치 전문업체 경력 30년 유명브랜드 냉난방기 전문 취급업체 / 미주 전지역 LG, 현대, 위니아, 삼성총판
AMAZING 에어컨백화점


에어컨 선정에 수백만 설치에 달합니다 LIC# 863510
323.525.0011/213.200.5388/amazingaircon.com

< 2010 미주기독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 제 개 혁 대 학 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 제 기 독 교 육 대 학
Internatia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6월 7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윌셔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rian Theologi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956-2900
2221 W. Colchester Dr., Ana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Angeles, CA.90007

풀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피 드 몬 트 대 학 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 니 엘 신 학 대 학 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교대학원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School Code : 9480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 션 신 학 대 학 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단지 $9.99/월에 이 모든 혜택을!"

로컬/장거리/한국 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놓칠 수 없는 기회!
글로벌 플랜
$24.99/월
TAX 포함
$9.99/월
첫 3개월간, 이후 15개월간 $24.99/월

지금 가입하시면, 30일 환불보장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미국에서 나만의 한국전화번호를 갖는다!"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개통비($29.99) 면제

단, 5월16일-5월31일 가입자에 한함!

- 집전화 및 휴대전화로 한국 포함 29개국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화!
- 미국전화번호 및 한국전화번호 무료제공!
- 기존 전화번호, 전화기 이용가능!
-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제공!
- 폰어댑터 무료대여!
- 간단한 설치 및 이용방법
- 택스 및 추가 수수료 없음.
- 365일 친절한 한국어 고객지원 서비스
- 최상급 회선을 통한 뛰어난 통화품질

중앙일보/중앙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1-800-875-8318 고객지원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Verizon, AT&T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아·이·토·크·비·비
iTalkBB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폴 이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8개월 간의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시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받으신 총금액을 합산해 부과합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계약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안전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iTalkBB와 함께 성장하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213-784-1133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태극 전사의 16강 진출을 기원합니다!

5월 한달 방문 하시는 분들에게 ALL THE REDS가 새겨진 멋진 T-SHIRTS를 드리며,
저희 딜러에서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급 타월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입 하신 분 중 한분을 추첨하여 42" PLASMA TV를 드립니다
(경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딜러에 문의 바랍니다)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회자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 제한)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드리는 푸짐한 사은품 과 함께
태극 전사를 응원하세요!





5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현대 쏘나타
(O.A.C & PLUS TAX T.D.O $2,999/12K MILE)
LEXUS만큼이나 좋은 차, 불티 납니다.
대량 확보로 가격및 모델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185/3YR
(STK:053078)



2010 신형 제네시스
(O.A.C & PLUS TAX T.D.O $3,999/12K MILE)
대형 세단의 중후함을 느껴 보세요.

$357/3YR
(STK:101150)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O.A.C & PLUS TAX , COMP. INCENTIVE T.D.O $2,999/12K MILE)
스포츠 카의 최 강자, 미래형 디자인과 힘을 느껴 보세요.

$207/3YR
(STK:028090)



2010 신형 엘란트라
(O.A.C & PLUS TAX T.D.O $2,799/12K MILE)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중소형 세단으로 연비 절감 효과

$144/2YR
(STK:946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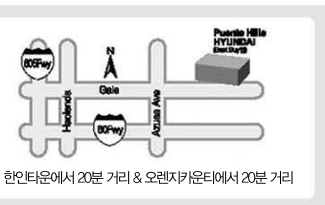


5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2007 BMW 328I WHITE STK:PZ70863 $21,8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P018925 $28,890
2005 NISSAN FRONTIER SILVER STK:P461103 $10,890
2008 NISSAN ALTIMA SILVER STK:P226495
2009 TOYOTA SIENNA LE BLUE STK:P277257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2009 HONDA ACCORD WHITE STK: P021316A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4.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박을 찾아주세요"



※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장


앤디 킴


스티브 박


지니 안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